

#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후원금 기탁식 개최

## 연말 나눔에 담긴 따뜻한 마음,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이광용)은 29일 광양시장과 재단 이사장, 기탁자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청 만남실에서 후원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기탁된 후원금은 △광양자동차등록번호관교부소(대표 윤희숙) 6백만 원 △남기호(개인) 5백만 원 △한성모터스(주) (지점장 김선근) 5백만 원 △광양상인연합회 5백만 원 △여수항도선사(대표 강철웅) 5백만 원 △(주)피디텍 알뜰주유소(대표 소재한) 2백만 원 △한화오션에코텍(주) 임직원일동 82만 7천 원 △백용순(개인) 50만 원으로, 광양지역 기업과 시민이 정성껏 모은 총 2,932만 7천 원이 재단에 전달됐다.

윤희숙 광양자동차등록번호관교부소 대표는 “전에 이어 다시 기부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말을 맞아 작은 정성을 전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남기호 씨는 “연말을 맞아 광양시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기

부에 참여했다”며 “기부금이 어린이보육재단을 통해 아이들에게 의미 있게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근 한성모터스㈜ 지점장은 “아이들이 밝게 성장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이 마음이 어린이보육재단을 통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봉 광양상인연합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기부금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 광양상인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화오션에코텍㈜ 선입은 “이번 연말, 임직원 모두가 작은 정성을 모아 기부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모아진 기부금이 아이들의 밝은 내일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지역사회와 아이들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한 해



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어진 따뜻한 나눔이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아이들과 기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용 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은 “이번 기부금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 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2026년도 사업으로 ▲쌍둥이 안심 단체보험 ▲어린이 1인 1악기 예술교육 지원사업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비 지원사업 ▲질병 감염아동(재가) 무료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보육시설 장난감 제작·소독 사업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 영암 덕진면지사협에 연말 기부행렬 이어져

### 기부금품 전하며 따뜻함 전해... 정기회의·반찬배달사업도

영암군 덕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봉진, 최영복)에 연말을 앞둔 26일 기부행렬이 이어졌다.

임민자 주식회사연다하우징 대표와 정인호 이노텍코리아 대표가 각각 200만원을 기부했다.

아울러 김봉진 덕진면지사협 민간위원장이 100만원을, 김혜리 전 덕진지역아동센터장이 50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김혜리 전 센터장은 이달 17일 영암군 혁신정책페스티벌에서 받은 상금 중 일부를 기부해 그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지역 사회단체의 나눔도 이어져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덕진분회(회장 김인영)가 100만원, 덕진면새마을부녀회(회장 한유순)가 50만원을 내

놓았다. 조희민 덕진면지사협 부위원장은 30만원 상당의 10kg들이 햅쌀 10포를 취약계층에 나눠달라며 전했다.

같은 날 덕진면지사협은 정기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 결산, 내년 신규 사업 제안 등을 논의하고,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의 하나인 반찬배달사업을 진행해 25개 가정에 김장김치와 밀반찬 6종이 든 꾸러미를 전달했다.

김봉진 덕진면지사협 민간위원장은 “많은 분들의 나눔이 이웃 사랑과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면민이 모두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위해 내년도 더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h·well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 시술 (보조생식술) 급여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 나주시, 시정 발전 공로자에 '명예시민증·패' 수여

### 에너지와 문화 분야 기여한 윤의준 회장, 박명성 감독 명예시민 선정

전라남도 나주시가 에너지와 문화 분야에서 시정 발전과 도시 위상 제고에 기여한 인사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그 공로를 공식적으로 기렸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30일 시청 이화실에서 '명예시민증·패' 수여식을 열고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과 박명성 주식회사 신시컴퍼니 예술감독에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패를 각각 수여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명예시민은 시정 발전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수여하는 제도로 이번 수여식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나주의 미래 성장과

문화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윤의준 회장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에너지 특화 대학의 안정적인 출범과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나주시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명성 예술감독은 2024~2025 나주영산강축제 총감독으로 활동하며 나주 대표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고 특히 2024년

36만 명, 2025년 52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나주를 문화관광 도시로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윤의준 회장은 “명예시민으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나주 명예시민으로 선정됐으니 나주가 명실상부한 에너지 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제안 등 에너지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성 감독은 “2년간 영산강축제를 진행하면서 나주 공적자들 덕분에 많은 도전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주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명예시민으로 예우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식에서 “윤의준 회장님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대학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핵융합 분야 연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핵융합 연구시설이 나주로 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셨다”며 “박명성 총감독님 역시 2024~2025 나주영산강축제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나주를 500만 관광 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 순천 청년 한승혁, '2025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순천시는 지난 24일, '2025 대한민국 인재상'에 순천 청년 한승혁 씨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창의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한 미래인재를 발굴·독려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

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인재상으로, 2025년에는 전국에서 총 100명이 선정됐다.

한승혁 씨는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 7기 위원과 청년 축제기획단으로 활동하며,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지역 청년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년정책 활성화 유공 부문 순천시장상을 수상하는 등 청년 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국립순천대학교 창업팀 '하루쟁이' 및 '한&백 식품'의 대표로 활동하며 2024년에 '창업유망팀 300+ 성장트랙'에 최종 선정(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되고 '농산업 실전 창업캠프 경진대회'에서 우수상(BPIS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창업 분야에서 다수의 수상 실적을 거두었다. '대학 벤처동아리 경진대회'에서는 2회 연속 대상(전라남도지사상)을 수상하며 청년 창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